

한·일·중 3국 재정운용 동향

박정수 부연구위원

CONTENTS

I. 분석배경	1
II. 경제 여건 및 전망	2
III. 우리나라 재정운용 동향	4
IV. 일본 재정운용 동향	7
V. 중국 재정운용 동향	10
[참고] 한일중 재정제도	13

연구 요약

'24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건전재정, 중국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의 예산을 발표하고 집행 중

우리나라

'23년 세입이 전년보다 77.0조원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 올해는 전년 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 2.8%,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9%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일본

'23년 수입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올해는 지출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전년 예산 대비 0.3%) 재정건전화 추진

- 2년 연속 국가채무 GDP 대비 비중이 감소('22 219%→'24 214%, 5%p↓)하도록 재정건전성 관리

중국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정체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목표(5%)를 달성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 추진(재정수지적자 전년대비 1.3조 위안 증가)

- '24년에는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높은 채무 증액 한도를 설정('24년 10.7조위안. 코로나 시기 3개년('20~'22) 평균 8.7조위안)



□ '24년은 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

- '23년 세계경제는 물가 상승, 교역량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국 정부 역시 대응에 총력
 - * 전세계 '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치 '23.1. 6.6% 대비 '24.1. 6.8%, 세계 무역량 증가율 예측치 '23.1. 5.4% 대비 '24.1. 0.4%
- '23년 한해 동안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했지만, 강도는 국가마다 달랐음*
 - * '23년 재정수지 전년대비 선진국 -1.9%p, 개발도상국 -0.5%p(IMF)
- '24년에도 '23년의 경기하방 요인이 상존
 - IMF는 기후위기 대응, 인플레이션 지속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정책에 있어 신중함을 기할 것을 권고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경제 동향,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 '24년도 예산 계획을 소개

- 3국은 1인당 소득, 인구 등 인구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높은 상호의존도를 가지는 지정학적 이웃국가임
 - * 수출입 의존도 중국 21.0%, 일본 6.0%. 총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 24.0%, 일본인 22.7%
- 3국은 각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난해의 수입과 집행 실적을 검토하면서 '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집행 중에 있음
 - 공통적으로 '23년 경제여건에 따른 수입감소·정체 등을 겪었으며, 복지비와 국방비, 이자지출 등의 지출 증가요인을 갖고 있음
- 3국의 재정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재정대응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국이 어떻게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지 참고 가능

1. 경제 여건

□ '23년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충격의 회복세가 잦아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지속된 한해였음

- '22년과 '23년은 코로나19에 눌렸던 소비의 회복, 전쟁의 여파, 기후 변화 등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을 전세계가 경험
-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23년은 '22년보다 소폭 낮은 3.1%로 전망되며, '24년은 전세계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3.1%의 성장세 유지 전망

□ IMF 전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으로 완만하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대비 높은 수준

- '24년 인플레이션은 선진국 3.0%(전년대비 1.6%p), 개발도상국 7.8%(전년 대비 0.7%p)로 전망되며, 2019년보다 여전히 높음

〈표 II-1〉 세계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2.8	-2.8	6.3	3.5	3.1	3.1
선진국	1.7	-4.2	5.6	2.6	1.6	1.5
개발도상국	3.6	-1.8	6.9	4.1	4.1	4.1
인플레이션	3.5	3.2	4.7	8.7	6.9	5.8
선진국	1.4	0.7	3.1	7.3	4.6	3.0
개발도상국	5.1	5.2	5.9	9.8	8.5	7.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 재정 여건

□ '23년은 각국은 직면한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을 추진

- 유럽 선진경제와 미국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 회복에 따라 재정긴축을 일부 완화
- 개발도상국은 높은 이자율에 의한 투자 부진, 코로나19 이전보다 부진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재정 긴축 상태 지속
- 고금리·고물가 대응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
 -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24년에는 전년보다 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축소되지만, 공공부문 부채 팽창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인플레이션은 2024년에는 조금씩 잦아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의 재정 정책의 재량 여지가 확대

- 다만 급격한 팽창적 재정정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IMF 등 국제기구는 신중한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

〈표 II-2〉 세계 재정 동향(%)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선진국						
재정수지	-3.0	-10.2	-7.5	-3.3	-5.2	-4.4
공공부채	104.1	123.0	117.0	112.3	112.1	112.8
개발도상국						
재정수지	-4.4	-8.5	-5.1	-5.0	-5.5	-5.4
공공부채	55.0	64.6	64.1	64.2	67.0	68.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 경제동향

□ 정부는 '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가 물가 하향 안정세, 수출중심 경기 회복, 양호한 고용,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등으로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는 회복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중동/러·우/중·대만), 글로벌 고금리 등 하방위험 존재
- 인플레이션은 '23년 대비 축소되어 2%대로 내려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19년 0.4%)보다는 높은 상태로 소비와 투자 제약

〈표 III-1〉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2.2	-0.7	4.3	2.6	1.4	2.1
인플레이션	0.4	0.5	2.5	5.1	3.6	2.3

주) 2022년까지 실적치. 2023년 속보치. 2024년 한국은행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 2023년 재정운용 결과

□ 지난 4월 11일 발표한 국가결산 결과, 총수입과 총지출은 전년보다 감소

- 수입 감소는 주로 경제 여건 부진으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에 기인
* 전년대비 소득세 16.0조원, 법인세 24.6조원, 부가가치세 9.6조원 감소
- 세출은 재난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미집행, 지방이전 항목인 교부세(금) 감액 조정(18.6조원) 등 감소
- 주요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보다는 30.0조원 개선되었지만 예산보다는 23.7조원 증가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성 기금 수지를 추가로 차감. 국민연금 적립금 등의 흑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수지 지표로 활용
- 국채 잔액은 전년보다 59.4조원, GDP 대비 1.0% 증가했지만, '23년 예산보다 7.6조원 감소

〈표 Ⅲ-2〉 2023년도 재정운용 결과(조원, %, %p)

	2022 결산	2023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결산		
총수입	617.8	625.7	573.9	-43.9	-51.8
총지출	682.4	638.7	610.7	-71.7	-28
통합재정수지	-64.6	-13.1	-36.8	-27.8	-23.7
관리재정수지	-117.0 (-5.4)	-58.2 (-2.6)	-87.0 (-3.9)	30.0 (1.5)	-28.8 (-1.3)
국가채무	1,067.4 (49.4)	1,134.4 (50.4)	1,126.7 (50.4)	59.4 (1.0)	-7.6 (0.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3. 2024년 예산

□ '24년 총지출은 전년 예산보다보다 17.9조원(2.8%) 증가한 656.6조원이며, 총수입은 13.5조원(2.2%) 감소한 612.2조원

- '24년 총수입은 '23년 예산보다 13.5조원(2.2%) 감소하지만, '23년 실적보다는 38.3조원(6.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총수입 규모는 '22년 실적(617.8조원)에는 못미칠 것으로 예상
- 주요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9%
 -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5년 관리재정수지 목표 GDP 대비 -3.0%
-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61.4조원 증가한 1,195.8조원으로 전망

〈표 Ⅲ-3〉 2024년 예산 개요(조원, %)

	2023		2024 예산	전년예산 대비	
	예산	결산		금액	(비율)
총수입	625.7	573.9	612.2	-13.5	(-2.2)
총지출	638.7	610.7	656.6	17.9	(2.8)
통합재정수지	-13.1	-36.8	-44.4	-31.3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p)	-58.2 (-2.6)	-87.0 (-3.9%)	-91.6 (-3.9)	-33.4 (-1.3)	
국가채무 (GDP대비, %, %p)	1,134.4 (50.4)	1,126.7 (50.4)	1,195.8 (51.0)	61.4 (0.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4년간 총지출은 연평균 4.5% 증가

-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24년 총지출의 37.0%를 점유하고 최근 4년간 연평균 5.2% 증가
- 국방, 교육, 이자지출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음
-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 또는 감소한 분야는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1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코로나19 한시지원 사업 종료로 감소

〈표 III-4〉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조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보건·복지·고용	198.4 (36.1)	216.1 (36.0)	227.8 (33.4)	226.0 (35.4)	242.9 (37.0)	5.2
교육	70.9 (12.9)	77.4 (12.9)	95.0 (13.9)	96.3 (15.1)	89.8 (13.7)	6.1
과학기술	8.1 (1.5)	8.9 (1.5)	9.5 (1.4)	9.9 (1.5)	9.3 (1.4)	3.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2 (6.8)	46.2 (7.7)	73.7 (10.8)	26.0 (4.1)	28.0 (4.3)	-6.9
교통및물류	18.3 (3.3)	21.1 (3.5)	21.7 (3.2)	20.8 (3.3)	22.1 (3.4)	4.8
국방	47.9 (8.7)	51.0 (8.5)	52.2 (7.7)	57.0 (8.9)	59.4 (9.0)	5.5
총지출	549.9 (100.0)	600.8 (100.0)	682.4 (100.0)	638.7 (100.0)	656.6 (100.0)	4.5
참고: 이자 지출 ^{주1)}	15.6 (2.8)	16.2 (2.7)	19.2 (2.8)	22.9 (3.6)	27.0 (4.1)	14.6

주 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이자지출 금액

2) 2022년까지 결산, 2023년과 2024년은 예산기준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주요재정통계」

1. 경제동향

□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24년의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23년보다는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

- '23년의 경제는 임금인상, 기업의 투자 증액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호황인 것으로 평가
 - 인플레이션은 엔저, 원자재 상승 등의 요인으로 1991년 이후 33년만에 최고로 높은 3%대 기록
- '24년은 전년 호황 대비 경기 둔화에 대비, 경제·재정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임금 인상, 투자 유인 등을 제시

〈표 IV-1〉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0.4	-4.3	2.1	1.0	1.6	1.3
인플레이션	0.5	0.0	-0.2	2.5	3.2	2.9

주) 2022년까지 실적치. 2023년 속보치. 2024년 IMF 전망치

자료: 일본 재무성 예산서·결산서 데이터베이스,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 2023년 재정운용 결과

□ 일본의 전년 재정실적은, 수입감소, 지출증가, 부채의 GDP비중 감소

- 수입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조세수입 1.6조엔, 기타자금 수입 6.5조엔 등 9.1조엔 감소
- '23년 11월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8.8조엔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지출 13조에 확대)을 실시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
 - 전년대비 보건위생대책비(3.2조엔), 중소기업대책비(2.5조엔) 위주 감소했지만, 연금지급금(5.6조엔), 국방비(7.0조엔), 공공사업비(3.0조엔), 에너지대책비(1.5조엔) 등이 증가하여 총 12.9조엔 증가

- 전년도 잉여금 수입*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전년(26.5조엔)보다 악화된 45.4조엔 적자(전년대비 -18.9조엔)

* '20년 코로나19 특례공채 미집행 잔액 36조엔을 상환없이 명시이월하며 3년째 차년도 세입처리

- 중앙정부의 국채 및 차입금 규모는 2023회계연도 말 1,226.8조엔이며, 전년보다 40.8조엔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중은 4.5%p 감소

〈표 IV-2〉 2023년도 재정운용 결과(조엔, %, %p)

	2022	2023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수입(A)	199.3	162.2	190.2	-9.1	27.9
지출(B)	192.9	180.3	205.8	12.9	25.5
수지(A-B)	6.4	-18.0	-15.6	-22.0	2.4
*전년도 잉여금(C)	32.9	2.9	29.8	-3.1	26.9
*잉여금 제외(A-B-C)	-26.5	-20.9	-45.4	-18.9	-24.4
중앙정부 국채 ²⁾ (GDP대비)	1,186.0 (211.9)	1,229.7 (-)	1,226.8 (207.4)	40.8 (-4.5)	-2.9 (-)

주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 기준에서, 보전거래인 채무 차환, 차입 및 상환금액을 제거한 금액임.

2) 일반회계 보통국채(건설공채, 특례공채), 차입금 등 포함. 단기증권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예산서·결산서 데이터베이스

3. 2024년 예산

□ 2024년 일본의 지출 규모는 180.9조엔으로, 전년 예산 대비 0.7조엔(0.3%) 증가, 실적 대비 24.9조엔(12.1%) 감소

- 일본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25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4년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크게 개선**

*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에서 이자지출 금액을 제외한 수지

** 이자지출(11.6조엔) 제외 시 1.0조엔 적자

- 수입은 전년 실적 대비로는 24.9조엔 감소하지만, 명시이월을 제외한 실제 수입은 7.2조엔(4.5%) 증가
 - 조세수입 규모는 73.7조엔으로 '23년 수준(73.7조엔)을 유지하며, 사회보험료 수입(전년대비 1.7조엔) 등은 증가 전망
- 중앙과 지방의 보통채, 차입금 등을 합한 국가채무는 1,315조엔, GDP 대비 214%로, 2년 연속 감소

〈표 IV-3〉 2024년 예산 개요(조엔, %)

	2023		2024	전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예산	금액	(비율)
수입	162.2	190.2	170.3	8.1	(5.0)
지출	180.3	205.8	180.9	0.6	(0.3)
재정수지	-18.0	-15.6	-10.6	5.0	
*전년잉여금 수입 제외	-20.9	-45.4	-13.3	32.1	
국가채무 (GDP대비, %, %p)	1,279 (224)	1,285 (215)	1,315 (214)	30 (-1)	

주: 국가채무는 중앙과 지방의 보통채무(적자공채, 건설공채)와 차입금을 의미

자료: 일본 재무성 예산서·결산서 데이터베이스

□ 4년간 지출규모는 연평균 -6.5% 감소

- 그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대책비(-68.0%), 재정융자(-27.8%), 코로나·우크라이나전쟁 대응비 등(-26.7%)을 중심으로 감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관계비(0.4%), 무기 취득 등을 위한 국방비(9.6%),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지출(9.1%)을 중심으로 증가

〈표 IV-4〉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조엔,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사회보장관계비	100.9 (42.6)	106.6 (53.4)	100.2 (51.9)	102.9 (50.0)	102.3 (56.6)	0.4
문교급및과학진흥비	9.2(3.9)	8.0(4.0)	8.7(4.5)	9.2(4.5)	5.5(3.0)	-12.1
방위관계비(국방)	5.5(2.3)	6.0(3.0)	5.5(2.9)	12.5(6.1)	7.9(4.4)	9.6
공공사업관계비(SOC)	9.3(3.9)	9.1(4.6)	8.5(4.4)	11.5(5.6)	6.5(3.6)	-8.8
중소기업대책비	16.3(6.9)	10.0(5.0)	3.4(1.8)	0.9(0.4)	0.2(0.1)	-68.0
재정융자	39.7(16.8)	10.4(5.2)	14.4(7.5)	5.6(2.7)	10.8(6.0)	-27.8
코로나19·우크라이나전쟁 고물가 대응비 등	24.3(10.3)	14.9(7.5)	17.1(8.9)	22.7(11.0)	7.0 (3.9)	-26.7
합계	236.6 (100.0)	199.6 (100.0)	192.9 (100.0)	205.8 (100.0)	180.9 (100.0)	-6.5
참고: 이자지출 ¹⁾	8.2(3.5)	8.0(4.0)	7.9(4.1)	9.0(4.4)	11.6(6.4)	9.1

주 1) 국채정리기금의 국채, 차입금 이자 지출.

2)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잠정 결산. 2024년 예산

자료: 일본 재무성 예산서·결산서 데이터베이스



1. 경제동향

□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운영의 목표로 성장을 5%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은 '23년의 인플레이션 수치인 0.7%는 미국발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18개월째 (-)인 생산자물가, 가파른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중국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함¹⁾
- '24년에는 외부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적자, 채무 발행 등의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표 V-1〉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6.0	2.2	8.1	3.0	5.2	5.0
인플레이션	2.9	2.5	0.9	1.9	0.7	1.7

주) 2022년까지 실적치. 2023년 속보치. 2024년 IMF 전망치

자료: 중국 재무부 홈페이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 2023년 재정운용 결과

□ 중국의 재정규모는 일반공공예산과 사회보장기금 부문 위주로 증가

- 국세 수입이 중심인 일반공공예산 부문의 수입은 0.6조위안, 지출은 2.1조위안 증가했으며, 재정수지는 4.8조 위안(GDP대비 3%)
- * 중국의 재정건전성 목표는 일반공공예산 수지 적자 GDP 대비 3%임
- 토지이용권 양도수입이 중심인 기금 부문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라 수입 감소(0.7조위안) 및 지출 감소(0.9조위안)

1) 삼성증권. '24년 중국 양회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24 중국보고서 등.

- 국유자본 부문과 사회보장 부문은 수입·지출 모두 증가

* (국유자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의 운영, (사회보장)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5대 적립식 보험

- 총채무는 2023년 실적 기준 71.1조위안으로 전년보다 6.7조위안 증가, GDP대비 비중은 3.2%p 증가
- 직전 3개년 평균(8.7조위안) 보다는 적은 수준의 채무를 발행하여 비교적 온건한 건전기조의 재정운영

〈표 V-2〉 2023년도 재정운용 결과(조 위안)

		2022	2023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일반공공 예산	수입	22.8	23.6	23.4	0.6	-0.3
	지출	26.2	27.5	28.2	2.1	0.7
기금 기금	수입	7.8	7.8	7.1	-0.7	-0.7
	지출	11.1	11.8	10.1	-1.0	-1.7
국유자본	수입	0.6	0.5	0.7	0.1	0.2
	지출	0.3	0.3	0.3	0.0	0.0
사회보장	수입	10.2	10.9	11.1	0.9	0.2
	지출	9.1	9.9	9.9	0.8	0.0
총 수지		-5.4	-6.6	-6.4	-1.0	0.2
총채무 (GDP대비)		64.3 (53.2)	72.0 (-)	71.1 (56.4)	6.7 (3.2)	-1.0 (-)

자료: 중국 재무부 보도자료

3. 2024년 예산

□ '24년 중국의 재정지출은 일반·공공예산 28.5조위안, 기금 12.0조 위안, 사회 보험 10.7조위안으로 전부문 전년대비 증가

- '24년 예산 일반공공예산 적자는 GDP의 3%인 4조 위안
-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예산보다 3.6% 증가한 24.5조위안이며, 지출은 3.8% 증가한 28.5조위안
- 기금은 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7.1조위안이며, 지출은 1.9% 증가한 12조위안
- 기금 부문 지출 증가로 인해, 4개 분야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0조위안 악화된 7.7조 위안으로 예상
- 채무는 전년보다 10.9조위안 증가한 82.0조원으로, GDP 대비 60% 상회 전망

〈표 V-3〉 2024년 예산 개요(조 위안, %)

		2023		2024 예산	전년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일반공공예산	수입	23.6	23.4	24.5	0.9	(3.6)
	지출	27.5	28.2	28.5	1.0	(3.8)
기금	수입	7.8	7.1	7.1	-0.7	(-9.4)
	지출	11.8	10.1	12.0	0.2	(1.9)
국유자본	수입	0.6	0.7	0.6	0.1	(10.6)
	지출	0.3	0.3	0.3	-0.0	(-5.4)
사회보험	수입	10.9	11.1	11.7	0.8	(7.4)
	지출	9.9	9.9	10.7	0.8	(8.1)
총 수지		-6.6	-6.4	-7.7	-1.0	
채무 총계 (GDP대비)		72.0 (-)	71.1 (56.4)	82.0 (61.7)	10.9 (5.5)	

자료: 중국 재무부 보도자료

□ 2020년 이후 일반공공예산의 지출은 연평균 3.5% 증가

- 지출은 이자지출(9.1%), 사회보장 및 고용(7.7%), 국방(6.4%)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
-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교통(1.7%), 과학기술(3.2%) 등임

〈표 V-4〉 일반공공예산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조 위안,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사회보장 및 고용	3.0 (12.4)	3.3 (13.3)	3.4 (13.8)	3.6 (13.8)	4.0 (14.5)	7.7
교육	3.5 (14.6)	3.6 (14.8)	3.8 (15.3)	3.9 (15.1)	4.1 (15.0)	4.3
과학기술	1.0 (4.0)	0.9 (3.7)	1.0 (3.9)	1.0 (3.8)	1.1 (3.9)	3.2
교통	1.1 (4.8)	1.2 (5.0)	1.1 (4.6)	1.2 (4.6)	1.2 (4.4)	1.7
국방	1.2 (5.1)	1.3 (5.3)	1.4 (5.6)	1.5 (5.6)	1.6 (5.7)	6.4
이자지출	0.8 (3.5)	1.0 (4.0)	1.0 (4.2)	1.1 (4.4)	1.2 (4.3)	9.1
일반공공예산 합계	23.9 (100.0)	24.6 (100.0)	24.6 (100.0)	26.1 (100.0)	27.5 (100.0)	3.5

□ 예산 회기의 차이와 발표시점

- 각국이 발표하는 자료는 예산 회기, 재정범위 등 제도적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하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을 회계연도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실적을 2월 중에 발표하고, 기금을 포함한 실적은 4월에 발표
- 중국 역시 1~12월을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실적을 전국인민대회 중인 3월 중에 차년도 예산과 함께 발표
- 일본은 4월부터 3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3월 말 차년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직전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의 잠정값을 발표

□ 재정의 범위와 건전재정의 지표에 있어서도 차이

- 일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운용하며, 국가채무 잔액 규모가 큰 만큼,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이 복잡
 - * 지방이전, 사회복지, 투융자, 국채상환을 중심으로 운용하며 우리나라의 기금과 유사하며, 국회에는 12월 말 일반 회계 예산, 1월 중 특별회계 예산을 제출하고 3월에 순계치를 발표
 - ** 일본 국채는 적자국채(특례공채) 외에 건설공채(투자용도), 지방교부세양여금배부금특별회계 차입금, 재정투융 자특별회계 국채, 지방채, 지방공기업채, 단기증권 등이 있으며, 포함여부와 기준에 따라 2022년 기준 GDP대비 179%(중앙정부 국채)~263%(일반정부 채무)까지 차이
- 재정운용과 건전성 목표는, 재정수지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25년까지 달성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채와 차입금 이자 출납을 모두 국채정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
- 중국 재정은 각각의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재정의 개념은 아직 없으며, 일반공공예산의 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를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
 - * 국세수입 기반에 적자를 일반국채로 충당하는 일반공공예산, 토지사용권 양도 수입 기반에 적자를 특별채무* 발행으로 충당하는 기금 예산, 자산 운용·매입 계정인 국유자본운용예산, 사회보험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보험기금예산으로 구성
 - * 현재 일반공공예산과 기금예산은 적자, 국유자본운용예산과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흑자상태

-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분류되며, 4대 사회보험*의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

*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개로, 기금 성숙도 등에 따라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재정수지에 통합해서 보면 건전성이 과대평가되므로 제외

〈참고 표: 3국의 주요 재정제도 특징〉

	중국	대한민국	일본
회기	1월1일~12월 31일		4월1일~3월31일
주요법령	예산법	국가재정법	재정법
편성 편성	재무부	기획재정부	재무성
	국무원	국무회의	각료회의
편성 기한	12월 중	9월 초	11월 중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국회	중의원
의결 기한	3월 중	12월 초	3월 중
결산	재무부	기획재정부	재무성
공통점	예산비법률주의		
건전화 목표	일반공공예산 수지3%	관리재정수지 3%	기초재정수지 흑자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4. 4. 11. 「월간 재정동향」2024년 4월호.

'24. 4. 11.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4. 2. 8.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3. 12. 21. 2024년 예산 국회 의결 확정.

한국재정정보원. 2023. 「2023 주요재정통계」.

日本 財務省, 2024. 財政法第 2 8 条等による令和 6 年度予算参考書類.

2024. 我が国の財政事情 (令和 6 年度予算政府案).

2023. 財政法第 2 8 条等による令和 5 年度予算参考書類.

2023. 令和 4 年度決算の説明.

2023. 日本の財政関係資料.

中国 财政部, 2024. 关于2023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4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2024. 2023年中国财政政策执行情况报告.

2024. 两会数说中国 | 今年赤字率为何拟按3%安排?

2024. 2023年财政收支情况.

2023. 关于2022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3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2023. 2022年财政收支情况.

2022. 2021年财政收支情况.

2021. 2020年财政收支情况.

IMF. (2024).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24.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IMF. (2023). Fiscal Monitor, April 2023.

FIS 재정리포트 24-01

VAR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재정적 물가 이론 분석

FIS 재정리포트 24-02

한·일·중 3국 재정운용 동향